

게리트 리트벨트 디자인 개념 재평가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Reappraisal of Gerrit Thomas Rietveld's Design Concept

이 광 인 | Lee, Kwang-In

정회원, 두원공과대학교 건축디자인과 교수

Abstracts

This study aims to evaluate Rietveld's creative design style and concepts. To this end, I looked into the evaluation of major researchers on Rietveld, classified all his works into four groups according to the design types and analyzed them. As follows: based on the results of the analysis of works I concluded.

First, Rietveld created the concept of the spatial extension to the ingenious joint which had the structural node formed of three listels with quadrangular section. It is the design innovation that led to liberate the closed construction. Second, Rietveld had opened up the possibility to neutralize the gravitational three-dimensional works. He subtracted the weight in the direction of gravity from the three-dimensional structure of the works and painted the three primary colors on them partially to get rid of the original material color. Therefore they looked like the forms liberated from gravity. Third, Rietveld ripped off the surfaces of cube through several formative experiments and decomposed the volume into the tesseract. Through this method of realizing the new plastic concepts, he completed the architectural models of weightlessness. Fourth, Rietveld opened the possibility of the realization of the three-dimensional works integrated all space and time in the one-pieced works and the folded works. Fifth, Rietveld steadily experimented and realized the internal and external integration of time and space in his later works.

Keywords

Rietveld, De Stijl, Space-Time, Neo-Plasticism, Elementarism

키워드

리트벨트, 더 스테일, 시·공간, 신조형주의, 요소주의

1. 서 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리트벨트의 작품을 연구한 기존 학자인 데니엘 바로니(Daniele Baroni), 폴 오베리(Paul Overy), 비트러스 물더(Bertus Mulder), 아이다 반 자일(Ida van Zijl)등은 일반적으로 더 스테일(De stijl)의 개념을 3차원 작품으로 실현시킨 리트벨트의 성과에 대해 높게 평가하고 있다. 일부 연구자는 의자로부터 시작해서 건축물에 이르기까지 더 스테일의 이념을 완벽하게 구현한 재능에 대해 찬사를 보내기도 하며, 또 다른 연구자들은 더 스테일과 러시아 구성주의 영향권 안에서의 동화된 한 멤버로서 평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트벨트가 설계한 쉬뢰더 주택의 건축주인 쉬뢰더(Schröder)부인은 오베리와 인터뷰에서 리트벨트는 더 스테일이나 구성주의의 개념을 잘 이해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그들의 철학이나 디자인 개념에 완전히 동조하기 보다는 자신의 공방활동을 통해 자신의 작품을 꾸준히 발전시키고 개발하는 실험에 몰두한 실험예술가였다고 회고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리트벨트의 독창적인 디자인 양식과 그의 예술적 관점을 재평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논문에서는 리트벨트에 관한 기존 연구자들의 평가들을 살펴하고, 작품분류 방법을 설정하여 작품분석을 진행한다. 이어서 작품분석의 결과를 토대로 리트벨트의 작품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한다. 후속 연구에서는 리트벨트의 디자인 양식이 현대예술에 끼치고 있는 영향에 대해 그 추이를 추적하여 현대예술에 기여한 공로들을 정리해 보고자 한다.

1918년~1964년까지 리트벨트가 사용한 독자적 공간언어와 구축체계는 특정 시기나 특정 작품에서만 적용된 것이 아니라 작품활동기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실험되어 왔다는 점에서 연구대상을 작품일부로 한정하기보다는 가구, 인테리어, 건축작품 등 모든 예술장르에 관계없이 전 작품을 대상으로 할 것이다. 또한 연구자료는 네델란드의 암스테르담, 위트레흐트, 로테르담에서의 현지 자료와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재생·보존된 리트벨트 작품집들과 리트벨트에 관한 국·내외 논문에서 수록된 작품들을 중심으로 진행한다.

1.3 작품분석 연구방법

동일한 공간구축 언어를 사용하는 작품들을 그룹핑하고 각 그룹별 작품 제작과정과 공간언어 발전과정을 분석하여 리트벨트가 일관되게 실현하고자 하였던 창의적인 디자인 양식과 그의 디자인 개념을 밝히려고 한다. 이를 위해 작품들을 유형별로 4개의 그룹으로 분류한다. 첫 번째 그룹은 공간확장형을 추구하였던 작품을 중심으로 그룹핑하고, 두 번째 그룹은 회화적 공간구성방식을 즉 색면의 운동감과 비대칭구성을 실험하였던 작품을 중심으로 그룹핑한다. 세 번째 그룹은 연속성 표현과 신재료의 물성을 실험한 작품으로 그룹핑하고 네 번째 그룹은 시간과 공간 및 내·외부 공간의 일체성을 건축작품에 투영시키려는 의도로 제작된 작품들을 그룹핑한다.

2. 기존 연구의 고찰

2.1 반 두즈버그(Van Doesburg)

반 두즈버그는 1919년 논문에서 리트벨트의 의자와 인테리어 디자인에 대해 ‘미래 인테리어의 진정한 추상적 조각’이며, 더 스테일의 추구하는 모든 원리를 실체화하였다고 평가하였다. 특히 리트벨트의 적칭의자에 대해서는 반중력적, 반구성적(antistatic, counter composition) 표본을 보여주었다고 극찬하였다. 그는 이미 출판된 사조에 근거로 한 이해와 지식에 목적을 둔 것이 아니라 시각예술, 건축을 만드는 사건이나 사상에서 집중한 점을 들어 리트벨트에 대한 예술사적 평가를 비학문적 방법으로 깊이있게 정의하는 경향을 보였다.¹⁾

2.2 바로니(Daniele Baroni)

바로니의 연구는 리트벨트가 전 생애에 걸쳐서 완성한 68개 작품을 수록하고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다음과 같이 리트벨트를 평가하고 있다. 리트벨트는 스스로 선두적인 이론가 역할을 하지 못했지만 근대 운동의 사상을 구체적으로 형성시킨 개척자라는 점을 부각시킨다. 그는 직관적이고 즉흥적인 예술감각으로 더 스테일 회원 중에서 작품성이 가장 뛰어난 인물이 되었고, 그의 예술적 감각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재현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다.

1) Daniele Baroni, The furniture of Gerrit Thomas Rietveld, Barron's 1978

리트벨트는 디자이너로서 몽드리양(Mondrian)의 이론적 조직이나 반 두즈버그의 신조어 합성(verbal synthesis)이나 사그의 일관성이나 변증법적 능력보다는 오히려 오우드(Oud)나 미스(Mies)와 같은 시적인 영감과 즉각적 사고방식에 비범했으며, 아방가르드 운동에 참여하긴 했지만, 사상이나 이념 선포에 앞장선 선동자는 결코 아니였으며 오히려 충실한 실현가였다고 해석하였다. 화가 그룹의 추상적 개념과 건축적 이상주의의 간격을 매워주는 건축가로서 역할을 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리트벨트는 익숙한 가구 스타일을 탈피하여 새로운 양식을 창안하고 그것을 건축에 적용시켜 리트벨트만의 독창적인 양식을 만들어낸 것을 커다란 성과로 지적하였다. 자신만의 고유한 표현 양상에 대해서 리트벨트의 의자구축 방법을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4각단면의 3각재 구축체계(structural node formed of three listels with quadrangular section)의 개발이 결정적인 단초가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것은 그의 모든 작품활동에 있어서 디자인의 근원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신조형주의 양식에 동참하는 수많은 동료 화가와 건축가들에게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음을 들어서 리트벨트 작품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2.2 폴 오베리(Paul Overy)와 쉬뢰더 부인

오베리는 리트벨트의 쉬뢰더 주택에 대해서 집중적인 연구를 하였다. 특히 쉬뢰더 부인과 직접 인터뷰를 통해 쉬뢰더 주택의 모든 건축과정과 디자인 발전과정 그리고 완공과 거주 후 평가까지를 전부 기록으로 남겨주었다. 쉬뢰더 부인은 리트벨트 초기의 가구디자인 특히 적청의자 시리즈는 예술적 선언이라기보다는 미술실험 작업으로 생각한 것 같다는 점과 쉬뢰더 주택 또한 적청의자와 동일하게 전체와 각 부분들의 합을 동시에 인지할 수 있는 뛰어난 능력으로 가구의 각 부품들을 조립하듯 구축할 수 있었다는 점을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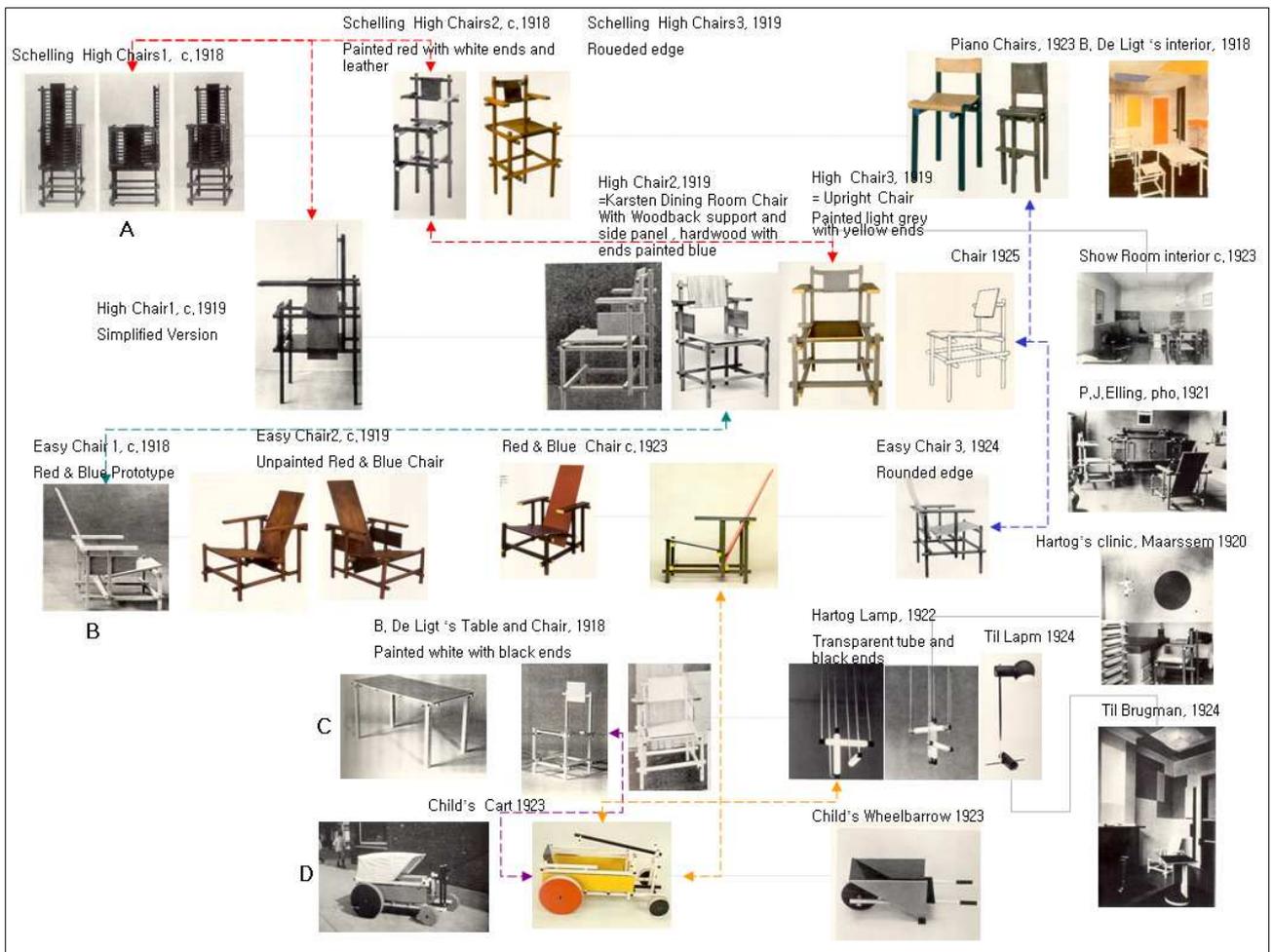


그림 1. 첫 번째 그룹 작품들

하였다. 리트벨트 초기의 실험작품의 궁극적 가치는 전통과 관습을 초월하는 혁신적인 가치를 갖고 있다는 점과 환상을 실현하는 능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결론으로 설명하였다.²⁾

2.3 물더(Bertus Mulder)와 반 자일(Ida van Zijl)

물더는 1975년 쉬뢰더 재단의 의뢰에 의해 쉬뢰더 주택의 외관을 복원하였다. 그는 고증과 실측을 토대로 이 주택을 재생시켰으며 1985년 쉬뢰더 주택의 실내외를 재수리하고 관련 자료를 정리하였다. 반 자일은 리트벨트의 작업활동 배경과 쉬뢰더 주택의 도면 재생 작업을 진행하였다. 두 사람은 리트벨트의 전 생애에 걸친 작품과 이에 얽힌 사연들을 수집하여 보존하였다.

2.4 뵈그 (Peter Vöge)

뵈그는 리트벨트의 작품에 대해 예술사적 가치를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는 학자 중 하나이다. 리트벨트의 작품에 대해 단순함의 미학, 형태와 색, 색상, 더 스테일 이후, 크기와 치수, 장식요소, 일체형 의자와, 산업적 최적화로 분류하고, 의자와 쉬뢰더 주택 등 주요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가하고 있다. 첫째, 단

순함의 미학을 오감으로 체험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작품이다. 둘째, 최소한의 주택(minimal house)속에 숨겨진 시각적 확장 인테리어 개념을 창안하였다. 셋째, 건축 구조물 뿐만 아니라 색으로 물체의 비물질화의 가능성을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고 평가하였다.³⁾

3. 유형별 작품분류

3.1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공간확장적 디자인 개념을 추구하였던 작품을 A그룹으로 묶었다. 공간확장적 디자인 개념을 처음 사용한 작품들은 공통적으로 1916년 위트레흐트의 공방에서 새로운 구축방법을 창안된 것인데 그것은 각재를 X-Y-Z 직교좌표⁴⁾를 교차시켜 접합시키는 사각단면 3각재 구축체계를 사용한 것이다.

사각단면 3각재로 구축된 작품들은 4가지 그룹으로 구분된다. 유형A는 쉘링 하이 체어(Schelling High Chair)시리즈와 하이체어(High Chair)시리즈로 구분되며, 유형B는 1923년 적정의자 최종 버전까지에 이르는 일련의 작품들이며, 유형C는 하르톡 램프(Hartog Lamp)의 명확한 데카르트 선에 근거한 삼차원적 패턴을 보여주는 작품들이며, 유형D는 사각단면 3각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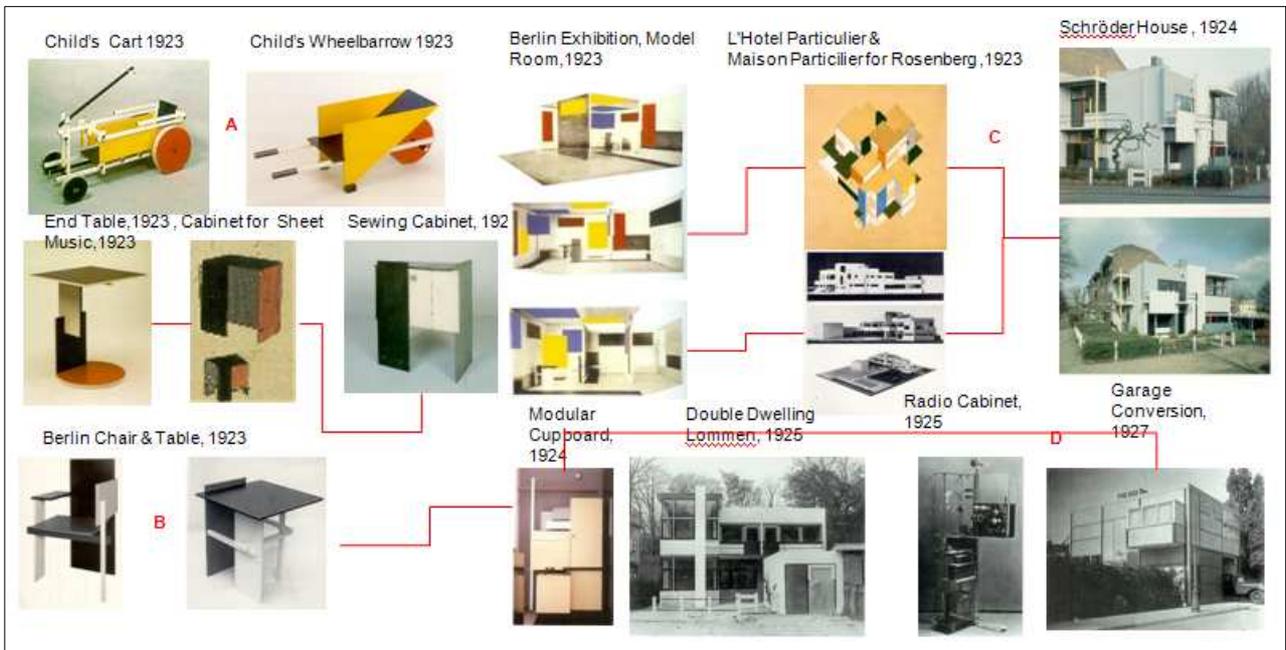


그림 2. 두 번째 그룹의 작품들

2) Peter Vöge, Paul Overy, 「The complete Rietveld Furniture」, 1993, 101publishers, From Icon to prototype by Paul Overy

3) Peter Vöge, Paul Overy, 「The complete Rietveld Furniture」, 1993, 101publishers

4) 직교좌표(Cartesian coordinate)란 가로좌표 abscissa, 세로좌표 ordinate, 천정좌표 zenith로 구성된 좌표를 말한다.

접합방식을 사용하고 기하학적 도형과 그것들의 색면을 추가한 구성으로 이루어진 작품이다. 더 스테일 화가들의 조언에 따라 채색되기 시작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두 번째 그룹

회화적 공간구성 방식을 색면의 구성 및 면 분할로 3차원화 실험하였던 작품을 중심으로 그룹핑하였다. 이러한 공간구성 방식을 사용한 작품 중 유형A는 초기에 브라운 색조에서 시작하여 무채색 즉 흰색, 검은색, 회색을 일부 가구에 입히기 시작한 것들이다. 이후에 더 스테일에 가입한 시기를 전후하여 가구에 원색을 도입했는데 1921년~23년 어린이용 수레와 테이블에 원색을 도입하였다.

유형B는 비대칭적 배치형식과 색면을 동시에 적용한 가구와 건축작품들이다. 엔드테이블, 캐비닛, 베를린 চে어와 테이블을 들 수 있다. 유형C는 가구에서 실험하였던 비대칭 디자인 언어와 색면을 건축으로 적용한 작품이다. 대표작으로 1923년 베를린에서 열린 박람회(L'Architecture Vivante, 1924)에 전시된 색-공간 디자인(Color-Space Composition) 작품과 쉬뢰더 주택, 1923년 파리 건축전시에 참여한 로장베르 주택(Maison Rosenberg)과 개인주택(Maison Particulière)의 모형작품 등을 들 수 있다.

유형D는 회화적 공간분할을 건축이나 가구 공간분할방식으로 응용한 것들이다. 1924년 모듈러 컵보드(modular cupboard), 1925년 로멘 주택(Double dwelling Lommen), 1925년 라디오 캐비닛, 1927년 기사 주택(chauffeurs dwelling)은 동일한 직교분할형태로 만들어졌다.

3.3 세 번째 그룹

1931년 반 두즈버그의 사망과 더 스테일 그룹의 해체 그리고 전쟁으로 인한 1930~40년대 공백기에 형태상의 연속성 표현과 신재료의 물성을 실험한 가구 작품들을 세번째 그룹으로 묶었다.

유형A는 리트벨트는 쉬뢰더 주택에서 식탁 의자와 쉬뢰더 부인의 아들의 침대 프레임을 금속 튜브를 사용한 작품들이며, 유형B는 새로운 합판의 성질을 이용한 지그재그 의자(Zigzag chairs)들, 유형C는 섬유 보드나 알루미늄 판을 이용한 일체형 의자(One-pieced chair)들, 유형D는 사선적인 계획을 보여준 장애아를 위한 학교(Home for handicapped children)과

디자인 박람회 스탠드(Design Trade Fair Stand) 등의 작품으로 분류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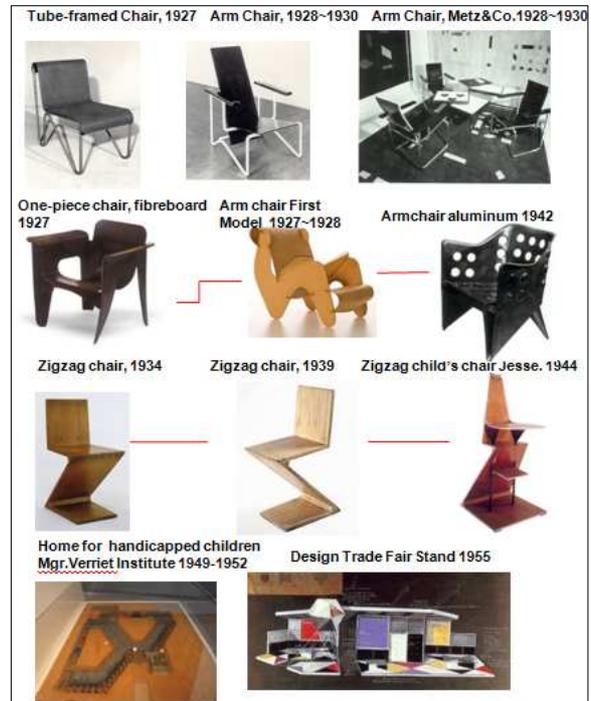


그림 3. 세 번째 그룹 작품들



그림 4. 네 번째 그룹 작품들

3.4 네 번째 그룹

1950~1960년대 연속성과 재료의 물성을 가구제작을 통해 터득한 디자인 개념들을 건축으로 실현시킨

작품들을 마지막 그룹으로 묶었다.

리트벨트의 조각전시관(Exhibition pavilion for sculpture)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건축작품들로 조네호프 미술관(Museum De Zonnehof, 1958), 달렌 주택(R.D. van Daalen, 1957), 돌 주택(van den Doel), 슬로베 주택(B. van Slobbe)과 최종 작품들에 속하는 디자인 명상교실 스티디 모형(Design Meditation Centre), 추모시설(Auditorium cemetery) 그리고 스텔트맨 의자와 테이블(Steltman Chair)들도 이 그룹에 포함하였다.

4. 작품 이해와 해석

4.1 첫 번째 그룹

첫 번째 그룹은 공간확장의 개념을 디자인으로 진전시켰다고 보여진다. 공간확장의 개념들은 동시대에 활동하였던 더 스테일의 화가들에게서도 흔히 발견되는 개념이었다. 더 스테일 화가들은 모든 물체를 수학방정식처럼 하나의 요소가 남을 때까지 단순화시켜 새로운 시각적 구성에 도달할 때까지 불필요한 모든 것을 제거하였다. 그러므로 수평적인 것과 수직적인 것은 서로 직각으로 만나는 십자형 모티프가 남겨지게 되었고 수직과 수평으로 뻗어나가 우주의 평형에 도달하는 새로운 개념이다. 리트벨트도 더 스테일에 참여⁵⁾하였고 그 당시 화가들의 신조형주의 개념과도 일치하는 개념을 추구하였다고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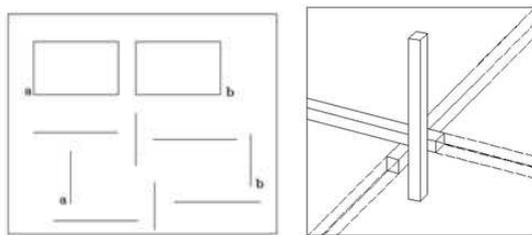


그림 5. 반 두즈버그와 리트벨트의 공간구성 개념

특히 반 두즈버그의 열린 구성 도식과 유럽을 휩쓴 수공예 작품, 베를라헤(Berlage)와 영국의 디자이너 맥킨토시(Charles Rennie Mackintosh)의 의자들, 라이트(F.L.Wright)의 의자 작품들을 통

5) 반트 호프(Robert van't Hoff)는 더 스테일 그룹과의 접촉을 주선하였으며, 더 스테일 창시자 반 두즈버그와 만나게 한다. 결국 리트벨트는 1919년 더 스테일 멤버로 입회하고, 자신의 작품들을 1919년 7월과 9월 더 스테일 지(紙)에 소개하며, 더 스테일 화가들과 상호교류를 확대한다.

해 경쾌한 공간구성을 보이는 새로운 가구들이 소개되었다. 리트벨트는 고된 수공예 가구 작업과정에 대한 불만을 느끼고 가구 제작방식에 진취적 도전을 시도했을 것이라고 추측된다.

그 계기가 무엇이든 간에 그는 이러한 개념을 2차원 회화나 도면에서 3차원 의자 제작으로 구현시켰다. 전통적인 의자 및 건축에서 사용되던 닫힌 구성을 열린 구성으로 이끌어 내는 단초를 제시한 것이다.

4.2 두 번째 그룹

리트벨트가 중력방향에 대한 해석 다이어그램을 그린 것을 보면 중력이 압축적 표현과 입체화 표현을 중요한 요소로 주목하였던 점을 알 수 있다.

즉 더 스테일은 중력이 지배되는 것으로부터의 완전한 자유로운 표현 방식을 보여준 것이라 이해되며 이를 위해서 의도적으로 반중력(anti-gravity)의 힘과 중력의 힘이 동일하게 작용하는 표현이 필요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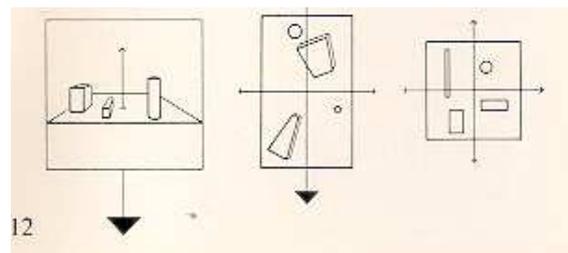


그림 6. 리트벨트, 중력방향에 관한 다이어그램 : 르네상스적 관점, 큐비즘의 관점, 더 스텔의 관점

리트벨트가 입체작품에 반중력 표현을 위해 채택한 방법 중 첫 번째는 색을 입히는 것이다. 재료가 가지는 경험적 색감을 없애고자 인위적인 색을 입힌다. 1923년 베를린체어를 무채색만을 사용하여 구축적 색을 제거한다. 베를린 건축박람회에서의 색-공간구성 작품과 1924년 슈뢰더 주택의 구조물에도 무채색을 입혀 중력의 힘을 상쇄시킨다. 이렇게 입체작품의 구조체가 가지는 중력방향으로의 육중함을 제거된 후 여기에 부분적으로 3원색을 채색하여 완전한 무게감을 소멸시켜갔다.

리트벨트의 반 중력에 대한 개념은 반 두즈버그의 테세랙트<Tesseract Study>도식에서 더 잘 설명되어진다. 테세랙트 또는 초입방체(hypercube)는 4차원 이상의 차원을 입방체로 설명하기 위한 수학적 도식이다. 이 개념은 수학자 힌튼(Charles Howard Hinton, 1853~1907)에 의해 개발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25

년 건축잡지 '라시텍튀르 뷔방뜨 (L'Architecture Vivante)'에 첫 선을 보인 것이다. 반 두즈버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나기 두 해전인 1929년 디 포름(Die Form)지에 마지막으로 실리기까지 여러 가지 변형된 도식과 그림들이 남겨져있다.⁶⁾ 테세렉트 도식들은 입방체 공간분해, 힘의 방향성 분해, 대각 시간성 창조를 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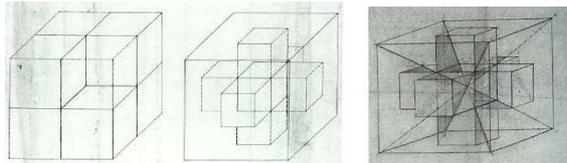


그림 7. 입방체와 테세렉트 도식(Cube with construction lines and tesseract in cube), 대각선과 색면이 포함된 입방체와 테세렉트(tesseract in cube with intersection lines and color specifications)

1925년 로멘 주택, 1925년 라디오 캐비닛, 1927년 기사 주택은 직교분해적 형태를 가지고 있다. 형태상으로 분해시키고, 외피면을 선으로 면으로 볼륨으로 분할시켰다. 다시 쉬뢰더 주택과 같이 그 구조체에 색을 제거하고 색면을 더하였다. 테세렉트에서 보여주는 것과 유사하게 건축물의 입방체를 분해해서 중력감을 제거하는 방식과 입방체를 다시 몇 개의 작은 공간으로 분해시키는 방식을 실제하는 공간으로 실현시켜 모델을 제시하여 주었다.

4.3 세 번째 그림

리트벨트는 국제주의 양식(International style)의 새로운 재료와 새로운 공법들을 접하면서 금속 튜브 프레임을 사용하는 의자를 본격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보인다. 1928년 A.S.B. 전시회(Stedelijk Museum, Amsterdam)와 의자전시(Stuttgart)에 출품한 튜브 프레임으로 된 의자들은 국내·외의 관심을 끌었고 그 당시 여러 출판물에 의해 소개되기도 하였다. 그는 튜브 프레임으로 만드는 작업과 동시에 한 장의 슈트를 접어서 만드는 의자 디자인을 고안하였다. 처음으로 만든 일체형 의자는 (First Model Chair for Birza, 1927) 섬유판으로 만든 것으로 마치 기계로 찍어내어 불쑥 튀어나올 것 같은 것이었다⁷⁾. 이 의자는 하

나의 슈트를 자르거나 구멍을 뚫고 최소한의 노동으로 조립하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아쉽게도 협력자인 그뢰네칸(Van de Groenekan)은 만들기 너무 어렵다는 것을 이유로 생산되지는 못했지만 천재성이 가장 잘 드러난 디자인 중의 하나로 보인다.

여기서 연속형태의 의자개발을 중단하지 않고 여러 버전의 지그재그 의자를 제작하였다. 결국 튜브프레임과 합판을 혼용하여 제작하던 의자들은 지그재그 형태의 합판만으로 제작되었다. 1938년경 리트벨트는 적층합판으로 만든 지그재그 의자(five-plywood Zigzag chair)는 진정한(one-piece chair)형태가 되었다. 그 후 1942년경 마지막 알루미늄 판으로 일체형 의자를 만들었으나 이 디자인은 대량생산으로 제작되지 않았다.

1950년대의 몇몇 작품에서도 사진패턴과 새로운 재료 사용은 계속된 것으로 관찰된다. 1949~52년 장애아를 위한 학교(Mgr. Verriet Institute) 배치계획, 1951년 예술과 소박함(Kunst en Kitsch, Haags Gemeentemuseum)전시실 바닥패턴, 1955년 무역박람회 스탠드(Trad Fair stand Enka)에 사진 구성을 활용하였다.

리트벨트는 새로운 재료들 즉 튜브 철제, 합판, 섬유보드, 알루미늄과 새로운 공법들 즉 한 조각의 슈트를 자르고 접고 핀으로 고정시켜, 적층 합판으로 구부러, 알루미늄을 접고 뚫고 용접하여 일체형을 만드는 공법을 개발한 것이다.

이러한 시도들은 연속성 표현을 통해 모든 공간과 시간개념을 일체화시키는 작업들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 개념은 반 두즈버그의 1925년부터 1931년 까지 반구성(Contra-Composition)과 동시적 반구성(Simultaneous Contra-Composition)작품들 그리고 1929년 오베트 프로젝트(Aubett Project)⁸⁾의 시네마-댄스홀

8) 1921년 호른형제(Paul & André Horn)와 하이츠(Ernst Heitz)는 스타라스부르그strasbourg 市로부터 90년 계약으로 오베트Cafe Aubette를 임대하고, 1926년에서 1928년 사이에 파사드를 제외한 내부를 보수하여 문화장소로 개조하였는데 이 프로젝트를 의뢰받은 것이다. 이 프로젝트의 가장 주요한 디자인 개념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도록 각 방들의 엄격한 구분을 피하고 나아가 도시의 활력을 건축 안으로 이끌어 들이는 '통로의 건물'을 만드는 것이었다. 그는 평면에 색채와 함께 소리까지 부가된 것을 상상하며, 사선을 여기에 접목하는 방법을 생각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상은 다다 음악가인 조지 안테일(George Antheil)의 글로부터 영향도 무시하지 않을 수 없다. 안테일은 음악양식의 한계를 수직-수평구조에 두면서 새로운 시·공간세계의 시간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음악적 차원'으로 사선을 제안하였으며, 또한 시간성을 옹호하면서

6) 이 도식은 테세르 tessere(불어), 테세렉트 tesseract(영어), 시-공간 모형(espace-temps), 4차원 공간모형 또는 빛 건축(l'architecture de lumière), 필름 콘티뉴엄(film continuum) 등으로 다양하게 불리웠다.

7) Gerrit Th. Rietveld, CUM, p.114

(cinema-dance hall) 계획에서 투사 대각선이라는 표현 도구와의 연관성을 간과할 순 없을 것 같다. 하지만 반 두즈버그가 후기 더 스테일 기간에 추구하였던 사선 패턴이 가지는 시각적 효과에 대한 미완성의 실험을 리트벨트가 그의 디자인 감각과 창의력으로 완숙하게 실현시켜 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4.4 네 번째 그룹

2차 대전 후 1951년 열린 더 스테일 전시회⁹⁾의 성공 이후 리트벨트에게 1953년 베니스 비엔날레의 네덜란드 전시관(Dutch Pavilion, Venice Biennale)¹⁰⁾ 건축의 기회가 주어지면서 내·외부공간 계획 즉 자연의 빛, 공기, 음영, 소리, 그리고 관람자와 공간이 함께 융합되는 개념을 발전시켰다. 사선으로 틀어진 현관부에서 관람자는 이끌리듯 내부로 들어서게 되며, 내부에서 현관을 구성하는 대형 창에서 투영되는 외부의 수목의 흔들림, 빛을 직시하게 된다. 내부의 두 개의 커다란 고창에 의한 빛과 세 방향으로 개방된 입면에 의한 조망이 투영된다. 1955년 리트벨트 전시관¹¹⁾에서 건물의 구조체가 공간을 가로막는 형태가 제거되고 투명 대형유리와 구조판 만이 공간을 가두고 열어주는 내·외부공간의 구분이 없는 투명공간을 만들어낸다. 그리고 건물과 조각과 관람자의 관계는 상호적이며 모든 요소가 작품화되는 동화개념으로 완성된다. 리트벨트는 자신의 작품에 대해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나는 우리의 탄생과 죽음이 우주의 방대한 활동에서는 우연적 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자각한 후부터 정신적인 수준으로 모든 것을 끌어 올리려는 노력을 펼쳐버렸고 그리하여 나의 인생은 더 가벼워졌다. 완벽을 위해 욕망을 회피하는 것이 새로

사선과 4차원을 동일시하고 있다.

9) 1950년대 들어서면서 모더니스트의 건축이 세계적으로 널리 수용되면서 더 스테일에 대한 복고양상이 네덜란드에서 진행되었다.

10) 네덜란드는 1913년까지 스웨덴 예술가인 Boberg가 설계한 스웨덴 파빌리온을 빌려 사용하다가 스웨덴이 재정적인 문제로 소유권을 포기하자 1916년 베니스로부터 그 필지와 건물을 구입하게 되었다. 1952년까지는 여러 다른 전시관을 전전하다 1953년에 교육·예술·과학행정부처가 리트벨트에게 네덜란드 파빌리온 설계를 의뢰하였다.

11) 1955년 Arnhem 근처에 있는 Sonbeek Park에 위치한다. 국제조각전시회를 위해 일시적으로 지어졌던 이 파빌리온은 전시회를 마친 뒤 곧 해체되었다가 1965년 뜻있는 네덜란드 건축가의 노력으로 Otterlo 지방의 NationalPa가 내에 있는 Kröller-Müller Museum의 정원에 다시 복원되었다.

운 건축의 특징이기도 하다. 모든 공간은 건물의 오직 작은 일부로서만 존재되며, 모든 건물은 주변 즉 도시와 지역의 일부일 뿐이다. 단지 일부가 된다는 것은 다른 모든 것에 개방되어 있다는 의미이다. 이렇게 될 때 닫혀있다는 문제는 없으며 그보다는 확장과 결합가능성의 문제가 남겨진다.”¹²⁾ 이 글은 함축된 키워드 역시 개방과 확장과 일체임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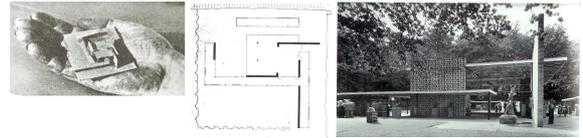


그림 8. 리트벨트 전시관(Exhibition pavilion for sculpture), Park Sonsbeek, 1955

이어지는 1956년부터 말년까지의 작품들은 이러한 맥락의 흐름 속에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1956년 달렌 주택, 1957년 돌 주택, 1962년 슬로베 주택, 1960~1965년 회엑스텐 교회(De Hoekstten Church), 1958년 추모관(Auditorium Cemetery) 그리고 1963년 디자인 명상센터(Design Meditation Centre) 개념작업과 스텔트맨(Stelman Chair) 의자까지 지속적으로 공간과 시간개념 및 내외 공간의 합일이라는 주제가 리트벨트의 최종 화두였음을 알 수 있다.

5. 결론

리트벨트의 일련의 작품활동과 디자인 개념들을 그룹핑하고 해석하면서 다음과 같이 평가할 수 있었다.

1. 리트벨트는 공간확장의 개념을 독창적인 조인트 방법을 창안하면서 입체 디자인으로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다. 전통적 의자 및 건축에서 닫힌 구성(closed in)을 열린 구성(opened out)으로 디자인 혁신을 이끌어 낸 것으로 평가된다.

2. 리트벨트는 입체작품들에서 중력을 무력화시키는 가능성을 열어주었다. 반중력 실현을 위해 자연색을 제거하고 인위적 색을 입히는 방법을 사용한다. 입체작품의 구조체가 가지는 중력방향으로의 육중함을 무채색으로 제거한 후 부분적으로 3원색을 채색하여 완전한 무게감을 해방시켰다. 독창적인 색 사용법을 통해 무게감을 완전히 제거한 입체작품을 실현시키는 모델들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된다.

12) Gerrit Rietveld 'Architecture' in Küper, Marijke, ed, Gerrit Rietveld complete works, Ventrail Museum Utrecht, 1992,

3. 리트벨트는 독창적인 여러 조형실험 방법으로 둘러싸인 입방체의 외피를 걷어내고, 외피면을 선으로 분할하고, 볼륨을 덩어리로 분해시켜 무중력적 건축의 선진적인 모델들을 만들어 주었다.

4. 리트벨트는 한 조각으로의 연속성 형태의 작품들을 제작하면서 모든 공간과 시간개념을 일체화의 입체작품으로의 실현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5. 리트벨트는 시간과 공간의 일체화를 넘어 내부와 외부의 하나의 일체로 엮어 융합과정에 이르는 것을 건축의 목표로 제시하였다.

리트벨트는 1917년부터 1963년까지 전 작품의 통해서 개방과 확장과 분해, 무중력, 연속성과 일체화라는 화두로 시간과 공간과 내부와 외부의 하나의 우주로 융합시키는 범우주적인 개념을 독창적인 방식으로 실현시켜준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Brown, Theodore, The Work of G. Rietveld Architect., the MIT Press, 1958
2. Barroni, Daniele, The furniture of Gerrit Thomas Rietveld, Barron's Educational Series, Inc., 1978
3. Küper, Marijke ed, Gerriet Rietveld complete works, Centraal Museum Utrecht, 1992
4. Overy, Paul ed, The Rietveld Schröder House, the MIT Press, 1988
5. Mulder, Bertus, Ida van Zijl, Rietveld Schröder Hou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6. Mulder, Bertus, Ida van Zijl, Rietveld Schröder House,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1999
7. Troy, Nancy J. , The De Stijl environment., Cambridge: MIT, 1983
8. Blotkamp, Carel , De Stijl : The Formatives Years., MIT press, 1982
9. Theo van Doesburg, Oeuvre Catalogue, Centraal Museum, 2000
10. Baljeu, Joost, Theo Van Doesburg, Studio Vista, 1974

논문접수일 (2012. 11. 20)

심사완료일 (1차 : 2012. 11. 28, 2차 : 2012. 12. 7)

게재확정일 (2012. 12. 12)